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트럼프 관세 조치 불구, 무역 적자 줄지 않아
- YahooFinance: 트럼프 관세 조치 불구, 무역 적자 줄지 않아

[미국 금융]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조치 불구, 무역 적자 줄지 않아

[뉴욕시 눈폭풍]

- Bloomberg: 뉴욕시 교통 대혼잡...센트럴 파크 적설량 15인치

[무역 전쟁]

- Reuters: 트럼프, 대법원 비판하며 “다른 관세 조치 이행”
- Bloomberg: 트럼프, 대법원 비판하며 “다른 관세 조치 이행”
- Bloomberg: 트럼프 관세 보복 경고에 글로벌 무역 혼란
- WSJ: 관세 대법원 판결, 미 경제에 불확실성 우려
- 기업들의 관세 환급 관련 안내

[인공 지능]

- 전 Citi 임원 “AI 로봇이 수십년에 근로자 수보다 많아질 수 있다”

[미국 경제]

WSJ: Why Tariffs Aren't Shrinking the U.S. Trade Deficit

트럼프 관세 조치 불구, 무역 적자 줄지 않아

- 트럼프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오히려 고착시키고 있으며 2025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 2,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은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 한편 IMF는 중국에 대해 경제 구조를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당성하지 않는 산업 정책”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기사

YahooFinance: Fed's Waller says he could shift to holding rates steady if next jobs report comes in strong

연준 이사 Waller “일자리 강하면 금리 동결 입장”

- 연준 이사 Chris Waller는 오늘 월요일 “지난번 6개월동안 노동 시장이 약세로 계속해 금리를 인하했다. 그런데 다음번 일자리 시장 보고서가 강하게 나오면 나는 금리 인하 동결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즈니스 경제 전국 협회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 그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발표되는 2월 노동시장 지표가 1월에 발표된 것처럼 강한 고용 증가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 노동시장 하방 위험이 개선

된 것으로 보인다면, FOMC의 정책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과 노동시장 강세가 이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 그러나 그는 1월 고용 지표가 하향 수정될 경우 3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Fall on AI, Tariff Jitters as Bonds Climb

트럼프 관세 조치 불구, 무역 적자 줄지 않아

- 주식은 하락하고 채권은 상승했다. 인공지능(AI)이 기업 수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관세 관련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위축된 것이다.
- 비트코인은 잠시 \$65,000 아래로 내려갔고, 금 가격은 상승했다.
- 현재 나스닥은 1% 약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신 관세 무역 동향의 영향을 저울질하던 투자자들 속에서 S&P 500 지수도 약 1% 약간 넘게 하락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였다.

기사

[뉴욕시 눈폭풍]

Bloomberg: NYC Travel Snarled by Snow as Central Park Gets 15 Inches

뉴욕시 교통 대혼잡...센트럴 파크 적설량 15인치

- 강력한 겨울 눈 폭풍으로 일부 지역에는 최대 2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뉴욕시로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맘다니 뉴욕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부분의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와 고속도로, 교량을 폐쇄했으며,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 뉴욕시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중간 수준의 해안 침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맘다니 시장은 “현재는 눈보라(Blizzard) 수준의 기상 상황”이라며, 시는 추가 대응 구조팀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사

[무역 전쟁]

Reuters: Trump renews attack on US Supreme Court, vows other tariffs, license

트럼프, 대법원 비판하며 “다른 관세 조치 이행”

- 트럼프는 오늘 월요일에 연방대법원의 관세 취소 결정을 비판하면서 다른 관세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 그는 “법원이 대통령 국제 긴급 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무효화 했으나 다른 모든 관세들은 승인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하게, 확실한 법적

근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 조항과 232 조항과 301 조항 등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 트럼프는 지난 토요일, (무역법 122조항을 사용해) 모든 국가로부터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임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가 경제 비상법에 근거해 여러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다”라고 판결한 바로 다음 날 나온 발표다

기사

Bloomberg: US Tells Partners to Honor Tariff Deals as Trump Regroups 미국, “무역 파트너들 무역 합의 존중하라”

- 미국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관련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미국의 파트너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무역대표부 Jamieson Greer는 “이 협정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행정부는 이를 지지할 것이고, 파트너국들도 마찬가지로 무역협정을 지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유럽의회의 무역 담당 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명확히 밝힐 때까지 EU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

Bloomberg: Global Trade Confusion Returns as Trump Overhauls Tariff Toolkit 트럼프 관세 보복 경고에 글로벌 무역 혼란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관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체결된 여러 무역협정에 새로운 혼란이 생기고 있다.
- 유럽연합은 오늘 월요일, 미국과의 협정 비준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이미 긴장된 대서양 양측 관계에 경제적인 불안을 낳고 있다.
- 인도 무역 담당자들은 미국과 임시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려던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 한편 트럼프는 EU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무역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들을 경고했다.
- 그는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에서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에 자의적으로 대응하려는 모든 국가, 특히 수년 오랫동안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들은,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어려운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기사

WSJ: Tariffs Are a Wild Card for the Economy Again 관세 대법원 판결, 미 경제에 불확실성 우려

- 트럼프의 관세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효화되면서, 이제 미국 경제를 둘러싼 새로운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 앞으로의 궁금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된 관세를 새 관세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체하느냐, 그리고 무역 파트너와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 트럼프가 새로 부과한 수입품 15% 글로벌 관세로 인해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은 판결 이전 수준보다 약간 낮아졌다. 이는 많은 기업에는 다소 편해질 수 있지만,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

KOCHAM 사무국: 기업들 관세 환급 관련 안내

- 국제무역법원(CIT)의 지침과 소급 적용 (지침 후 세관 매뉴얼 마련) 연방대법원이 관세 무효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하급 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으로 환송했기 때문에, 이제 CIT가 구체적인 '환급 실행 지침'을 먼저 작성하게 됩니다. CIT의 공식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연방 관세청(CBP)이 그에 따른 세부 소급 적용 매뉴얼(이자 계산 및 환급 절차 등)을 수립하게 되므로, 기업들은 CIT의 후속 발표가 나올 때까지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며 대기해야 합니다.

- Liquidation(통관 확정) 상태별 대응 전략 (미확정 건은 대기) Liquidation은 세관이 수입 건의 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이미 Liquidation이 끝난(확정된) 건은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불복 신청(Protest)'을 완료해야만 환급받을 법적 자격이 유지됩니다. 반면, 아직 Liquidation이 되지 않은(통관 진행 중인) 건은 세관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으로 관세를 0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 당장 불복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세관의 자동 조정 지침을 지켜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 향후 보다 정확하고 진전된 정보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인공 지능]

CNBC: AI robots may outnumber workers in a few decades, ex-Citi executive says

전 Citi 임원 “AI 로봇이 수십년에 근로자 수보다 많아질 수 있다”

- 전 씨티 그룹 임원은 수십 년 안에 AI 로봇이 사람 근로자 수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 그는 월요일 CNBC 프로그램 Squawk Box Europe에서 “오늘날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매할 수 있으며, 사람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투자 회수 기간이 10주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한편, 맥킨지는 자사 내에서 18개월 안에 사람 근로자 수와 AI 에이전트 수가 동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